

1985年3月1日發行 文公部登錄番號마-295號(1973年8月29日登錄)

1985년 봄 화랑



35426

畫廊

1985 봄
NO.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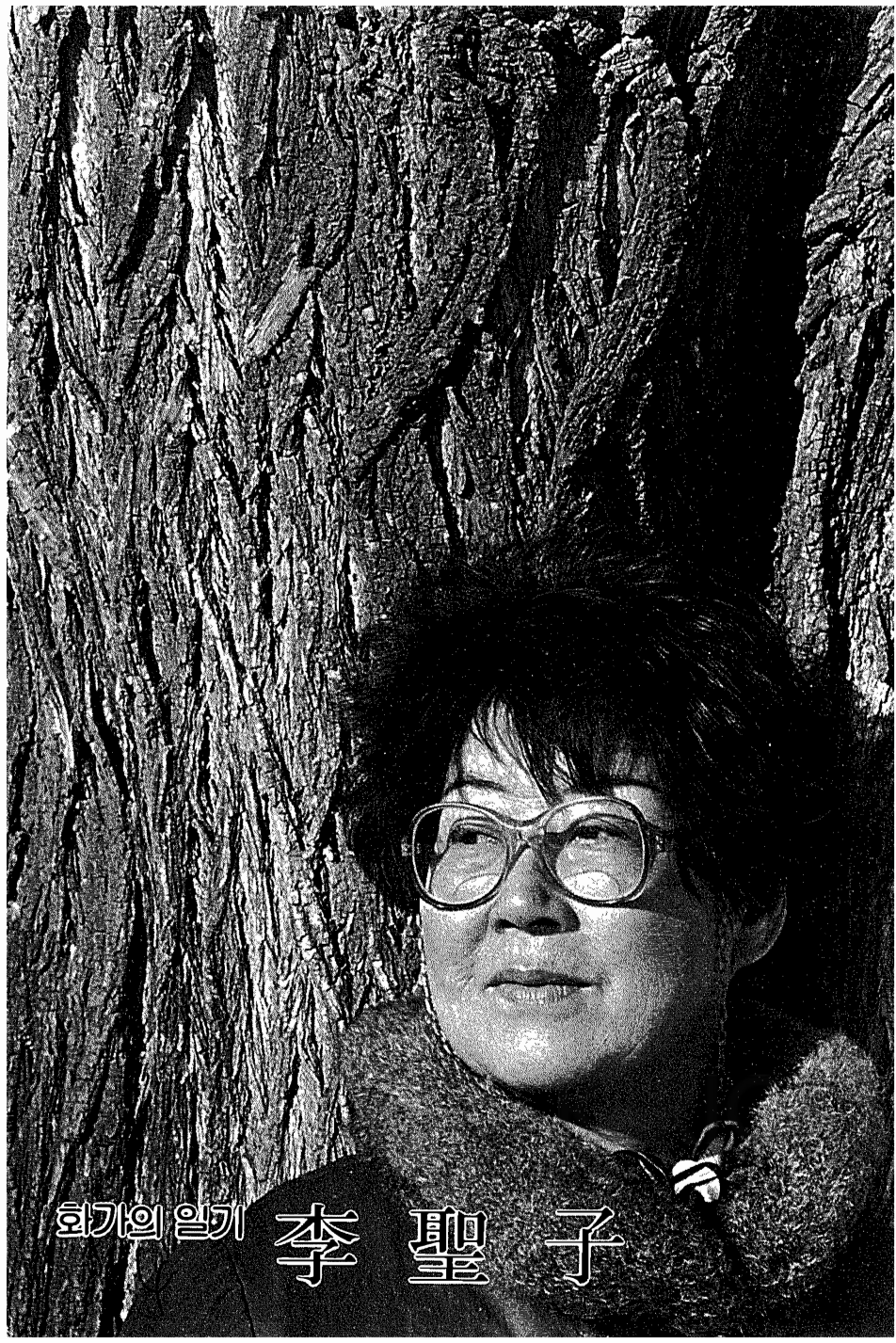
面廊

1985년 봄 호 (통권 47호)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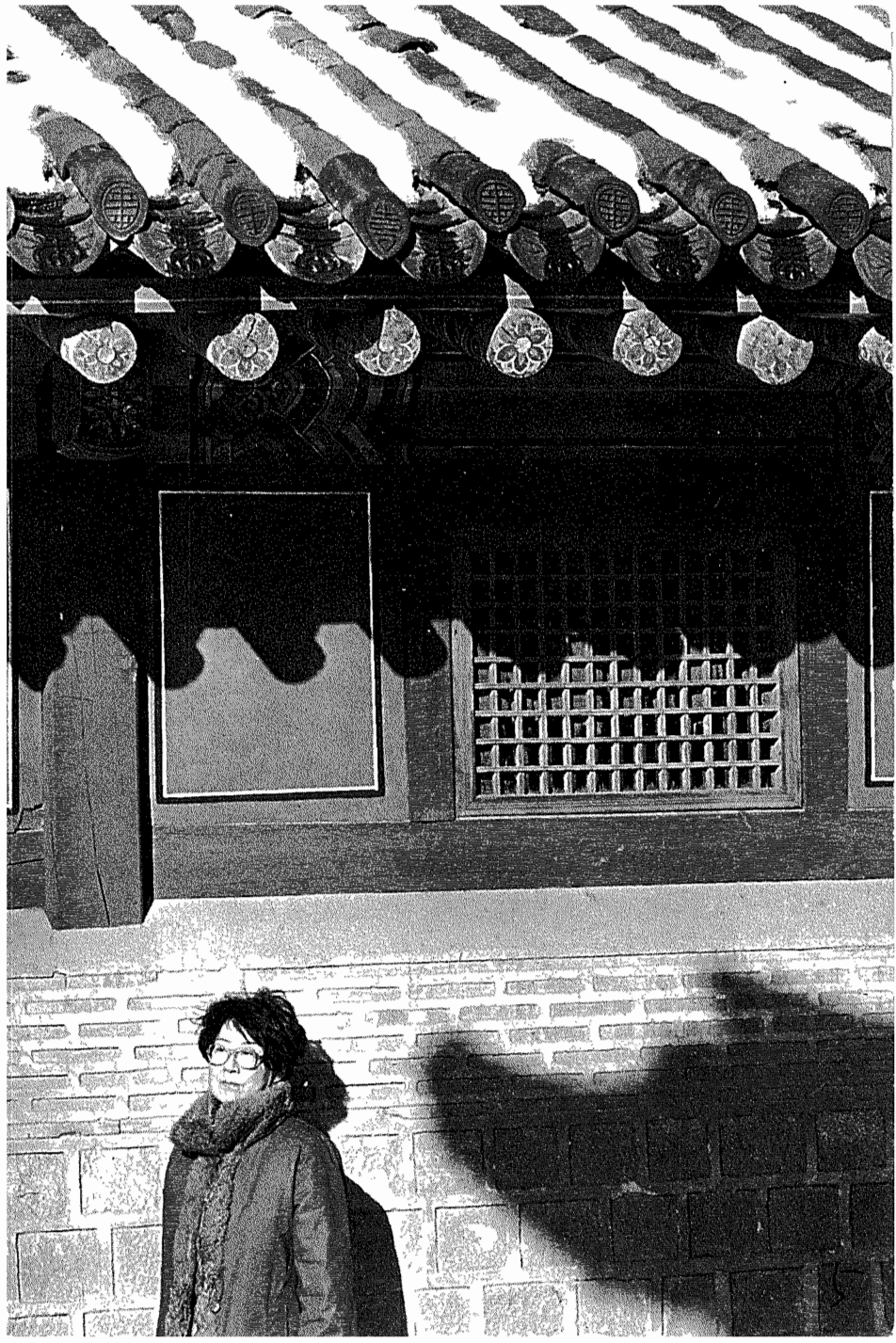
- 3 화가의 일기
파리, 뚜레뜨, 서울, 北極航路/李聖子
- 25 정담·한국미술85
尹明老/劉俊相/洪贊植
나의 포부·金東洙/송수남/閔庚甲/
이신자/郭桂晶/河鍾賢/박경란/鄭官謨
/高正守/韓雲晟
- 37 해외의 한국작가·韓 默
60년대초의 작품들
- 49 해외미술
두개의 간딘스키 회고전/오광수
- 64 화제의 전시회
라울·뒤피 名作展
- 66 「青田과 小事」展이 준 교훈/유홍준
- 77 작가연구·牛玄宋榮邦/金炳宗
- 89 近作메모/박석원
- 93 아틀리에 탐방·서승원
- 102 수필·金良洙/金銀暎/許英子/
박동수/洪享珠
- 112 여류와의 만남 : 광정명
작품이란 작가의 경험적 소산이어야/魯福美
- 121 포트
美人圖/尹厚明
- 125 국내뉴스·삼행동정
표지화 : 李聖子 목판화

KoRICA



화가의 일기

李 聖 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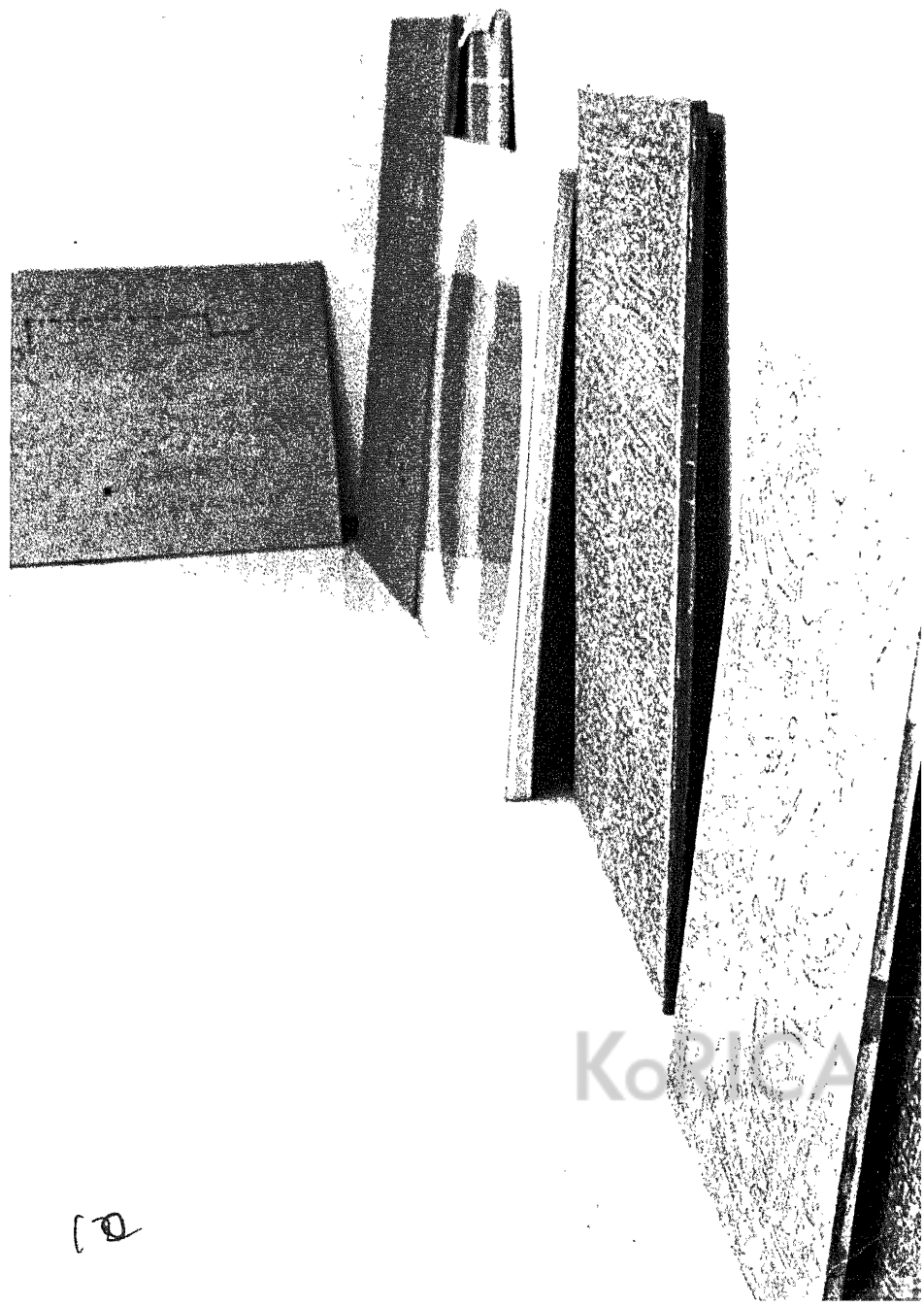
Ko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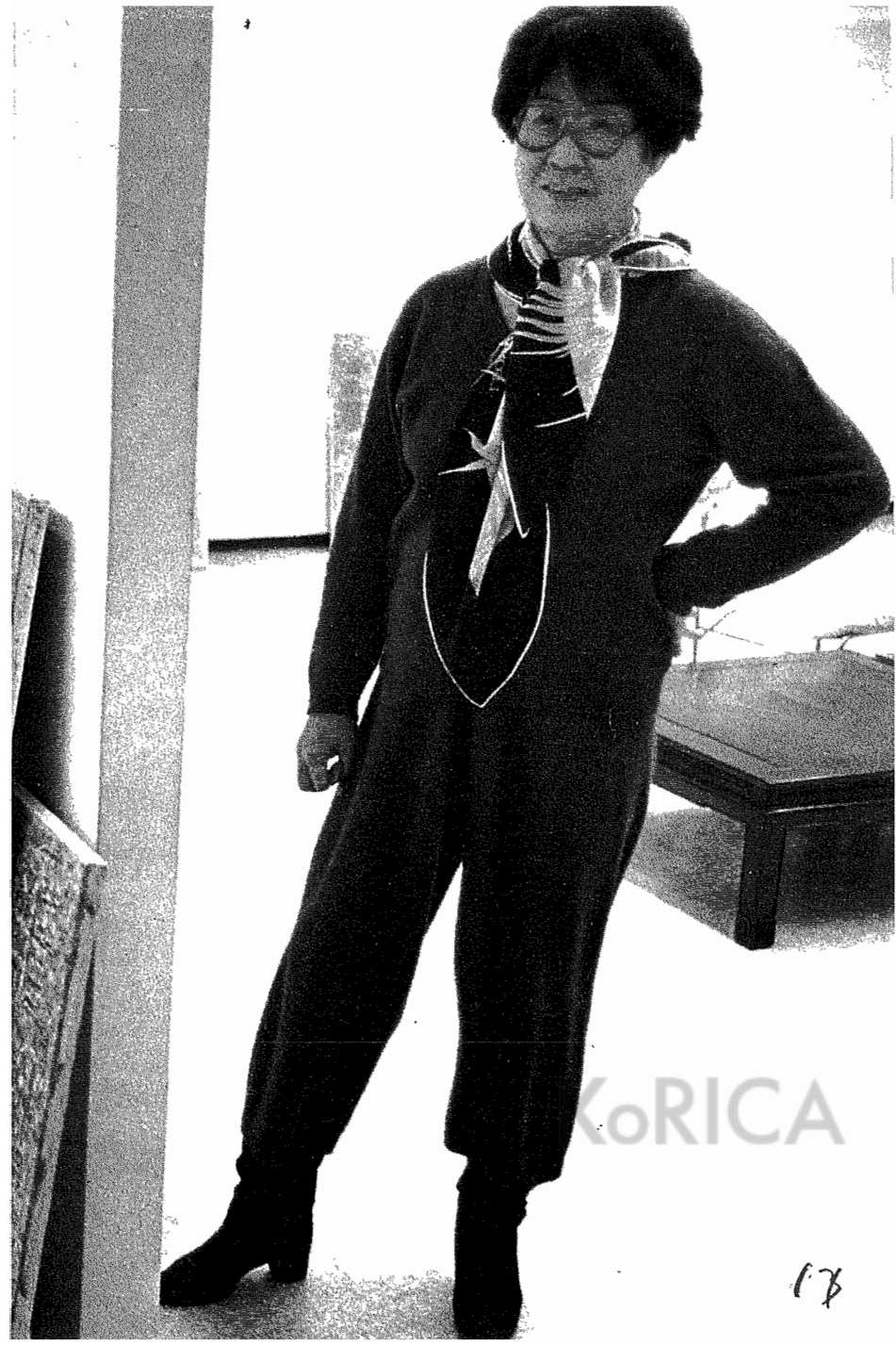
8



KoRICA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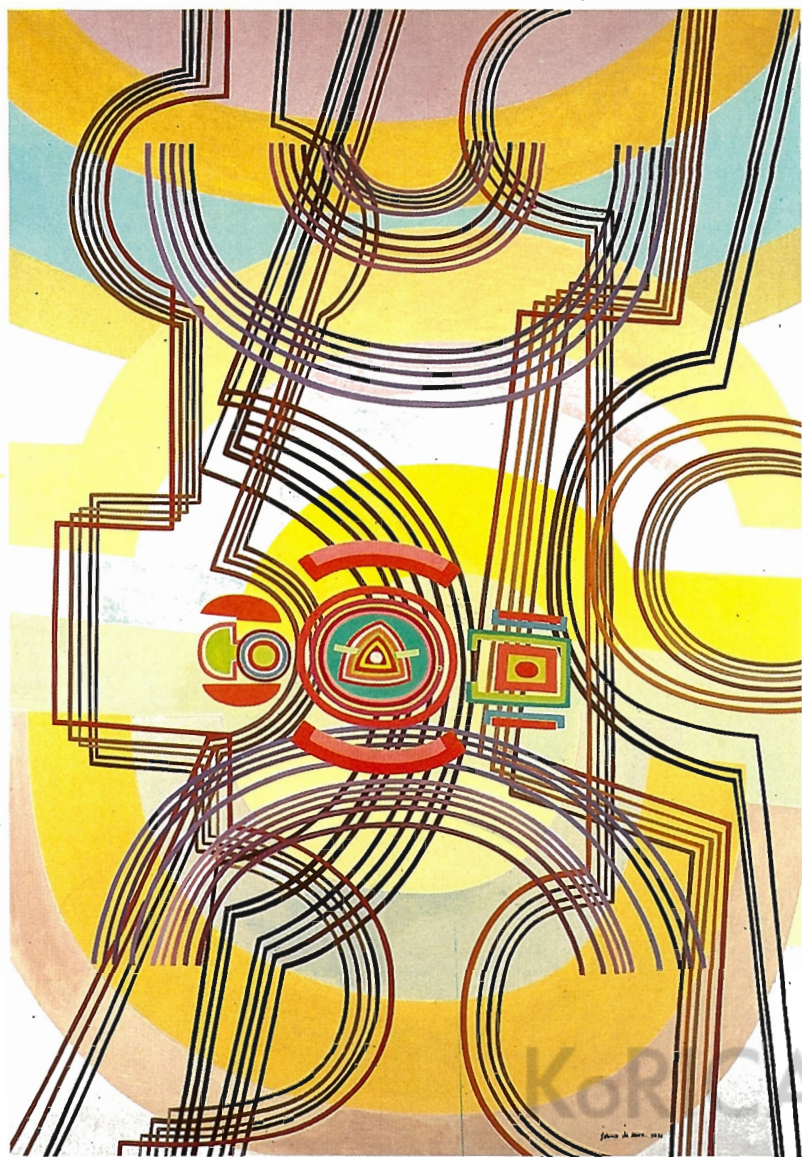
Ko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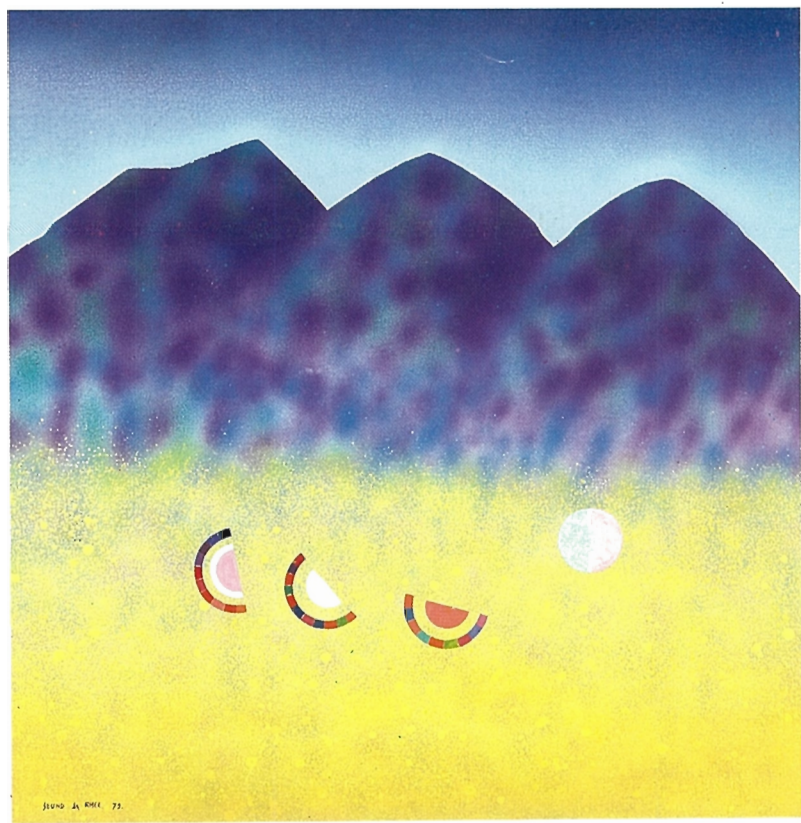
KoRICA



「호름속에서」 100×64cm,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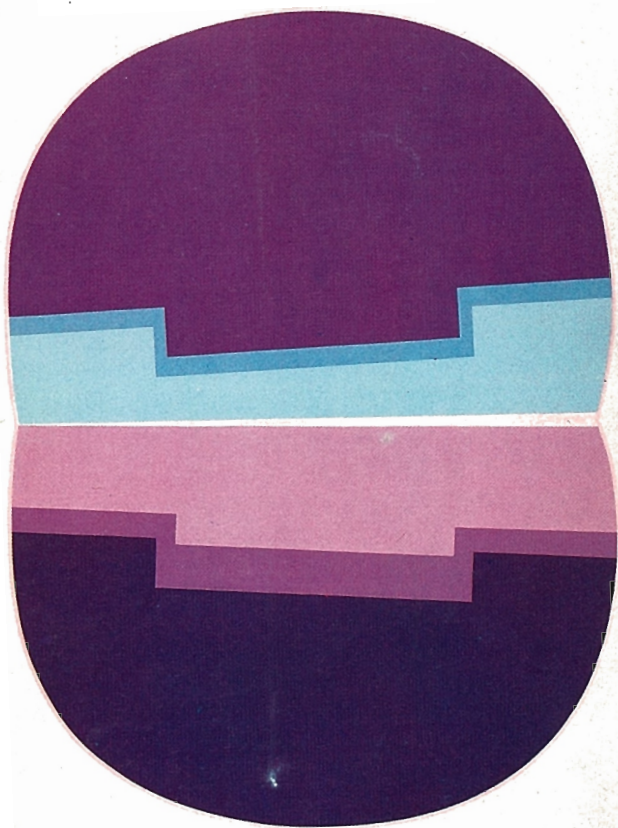


「공간중복」 162×114cm, (1971)



「順天의 三山」 80×80cm, (1979)

KoRICA



KoRICA

「도시」 162×130cm, (1973)

파리, 뚜레뜨, 서울, 北極航路

1951년에 파리로 가서 65년까지 15년간 죽 파리에 있었다. 그림을 시작하고 거기 매달리며 날마다 혼자 작품을 했다. 그 때 한 작품이 목판화였다. 목판화를 한 것은 내가 정서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파리는 산이 없는 도시이다. 그런 도시에서 나는 자연이 필요했다. 木板을 판다는 것은 내가 자연과 만나는 일이었다.

목판을 파는 일은 밤에도 할 수 있다. 색깔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목판을 파면서 나무와 만나고 자연과 만나며 그런 작업을 통해 숲을 산책하는 정서에 젖었다. 도시 속에서 내가 필요로하는 자연,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그렇게 자신이 만들어 갔다. 15년을, 파리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

1968년 나는 南佛의 뚜레뜨(Tourrettes)에 나의 여름 화실을 마련했다. 내가 南佛과 인연이 생긴 것은 60년대초 부터였다. 칸느의 화상 까

발레로가 파리에 와서 내 작품을 산 것이 계기였다. 그리고 60년대 중반에 칸느에서 개인전을 열면서 南佛에 사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고 그런 친구들의 초대를 받아 가끔 파리에서 그곳을 찾아갔었다.

뚜레뜨는 파리 남쪽 1천Km에 있는 작은 고장이다. 니스와 칸느에 중간에 있으며 알프스 산맥이 시작되는 해발 4백m의 높은 지대이다. 뚜레뜨가 있는 알프마린주는 이탈리아와의 국경이 있는 주이며 바다는 지중해를 끼고 있다.

기후가 유럽에서는 최고로 좋아, 피카소, 샤갈, 르누르…… 그 밖의 많은 화가들이 만년에 정착한 곳이다.

파리의 바캉스 시즌이 시작되면 나는 기후가 너무 좋은 뚜레뜨로 가서 1년에 몇개월간을 지낸다. 그곳에 화실을 마련한 후로 파리에서는 그림(油畵)을 하고 뚜레뜨에서는 목관화를 한다.

나는 희망이 없으면 못 산다. 봄이 온다는 것은 나의 새로운 희망이다. 왜냐 하면 기후가 좋은 뚜레뜨로 가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생활을 할 수 있는 철이 가까와지기 때문이다. 파리의 바캉스 시즌인 6월이 되면 나는 南佛로 떠난다. 그 시간은 나의 제일 행복한 시간 중의 하나이다.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든 조그만 내 차에 작품을 할 재료랑 필요한 것을 다 챙겨 싣고 손수 차를 몰아 새벽 4시쯤 파리를 떠난다. 어서 뚜레뜨로 가고 싶은 마음에, 도중에 호텔에서 쉬지도 않는다.

파리에서 리옹까지는 5백km, 반쯤의 거리인데, 리옹부터는 남쪽의 특색이 완연히 드러난다. 건물, 도시 환경이 달라지고, 태양빛깔, 초목들도 달라진다.

저녁때, 6시쯤 뚜레뜨의 내 그리운 화실에 도착한다.

집에 탁 들어서면, 모든 초목들이 축늘어져 있다. 그 곳 기후는 5월부터 비가 안 오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곳에 도착하는 6월이면 모든 초목 화초들이 목이 말라 축늘어져 있는 상태이다. 나를 보면 그 애들, 모든 초목들이 다 나 죽겠다고 메달리는 것만 같다. 그래서 내가 가자 마자 하는 일이 1만m 주위의 내 정원에 물을 주는 일이다.

다음날부터 나는 바로 내 화실 앞에 내가 좋아하는 꽃들을 심고 가꾼다. 뚜레뜨에서 지내는 3~4개월간, 나는 바로 화실 앞에 내가 좋아하는 꽃이 있어야 한다.

나는 어렸을 때 晋州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꽃과 나무를 좋아 하셔서 정원 가득히 꽃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지금 사셨으면 1백살이 훨씬 넘은 옛날 분인데도, 서양 식물을 좋아 하셨다. 집안에 있는 꽃들이 모두 유럽꽃들이었다.

그런데 어린 내가 갖고 싶은 꽃은 봉숭아 같은 우리나라에 흔히 피는 꽃이었다. 마을에도 우리 주변의 가난한 집에는 그런 꽃들이 있었다. 봉숭아며, 백일홍이며, 채송화, 분꽃, 코스모스 같은 꽃들이었다.

뚜레뜨의 나의 화실과 부엌 앞에는 내가 어렸

을 때 갖고 싶었던 그런 꽃들을 각각 심어서 가꾼다.

그런 정원 손질이 2주일 쯤 걸린다. 나는 그 꽃들을 내 아이들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애들이 다 각각 제 자리에 제대로 있게 하고 그렇게 있어야 비로소 작품이 된다.

꽃나무들은 화실 앞에도 있고, 또 다른 꽃나무들이 부엌 앞에도 있다. 작품을 하면서 무슨 빛깔을 할까 하고 생각하며 밖의 꽃들을 바라보노라면 “나”라고 하며 꽃들이 서로 나서는 듯 하며, 내가 원하는 빛깔이 썩 나온다.

뚜에뜨의 화실 주변에는 새들도 많아 온갖 새들이 날아 온다.

해발 4백m의 그 곳은 자연과 나 뿐이다. 그러므로 저녁에는 일찍 잔다. 해가 질 때쯤이면 벌써 잘 준비를 한다. 그 대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난다. 별이 있을 때 일어나므로 나의 일어나는 시간은 첫새벽이 된다. 깊은 밤에 밖에 나가서 별을 보지는 못한다. 넓은 자연 속에 나 혼자 있으므로 무섭다. 그러나 새벽에는 어두워도 안 무섭다.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별이 하마 총총하다. 날이 밝으면 아침 준비를 한다. 아침 음식들을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정원으로 나간다. 큰 바위가 있는 곳이다. 그 바위 끝에 내가 아침을 먹는 자리가 있다.

자리에 앉아 바구니를 놓고 아침을 먹기 시작하면 여름날의 아침 해가 막 떠오른다. 나는 떠오르는 해를 애인처럼 바라본다. 그리고 감사한다.

아침 햇빛이 바위를 비치고 바위 틈에 난 작은 꽃들에도 비친다. 심지어 앉았는데 조끄만 꽃들이 어찌 그리 나왔겠노 하면 신비스럽고 그런 신비스러운 꽃들을 보는 내가 또 행복해진다.

낮에는 감나무 밑에서 점심을 먹는다.

그리고 가끔, 니스나 칸스로 전람회 구경을 간다. 전람회, 영화제, 의상 발표회 등 그곳 시즌은 여름이다. 니스나 칸스가 모두 나의 화실이 있는 뚜레뜨에서 35km 전후의 거리이다. 포장된 길이 좋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 곳 미쳐 27km쯤 가면 바다가 있다. 가는 길에 바다에 들어가 수영을 하기도 한다.

뚜레뜨에서는 그런 생활을 하며 주로 관화를 한다. 그렇게 지내면서 한 3개월쯤 되면 나에게 는 또 都市가 필요해진다. 도시의 자극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뚜레뜨를 떠날 날이 다가오면 내 정원의 나무며 꽃들, 감나무도 복숭아 나무도 백일홍도 채송화도 애들이 모두 슬퍼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또 나에게 필요해진 파리로 가야 한다. 애들에게 “겨울 잘 지내라”하는 인사를 하고 다시 새벽 일찍 파리로 돌아가는 길을 떠난다. 그때 또 나에게서는 파리로 가는 게 희망이 된다. 파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정치, 경제도 문화, 문명)가 있는 곳이다. 자연에는 없는 것이 파리에 는 있다.

모든 전문가들이, 자기의 최고 능력을 보여 주는데가 파리이다. 나쁘게 말하면 생존경쟁이며, 다윈이 말한 자연도태・適者 생존・진화의 현장

이 파리이다.

나는 거기서 자연이나 초목에서 받는 자극이나 영양과는 정반대인 영양을 받아 들인다.

파리에서도 나는 일찍 자고, 새벽 4시쯤 일어난다. 일어나는대로 세수를 하고 화실에 들어간다. 그 새벽의 정적 속에 파리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 시각이면 아직 온 파리가 다 자는데, 그 자는 파리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그런 파리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작품을 시작한다.

1965년 나는 처음 北極을 지나서 한국에 돌아왔다. 파리에서 에어 프랑스의 새로운 비행기 길이 생긴 초기였다. 그 비행기로 북극과 알래스카를 거쳐 한국에 오는데 그렇게 너무 너무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나의 작품 ‘極地로 가는 길’의 시리즈는 거기서 탄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나는 15년만에 한국에 왔다. 국내의 여러분들이 나를 반겨 주며, 내가 그동안에 한 일들에 대한 이해도 너무들 잘 해 주셨다. 내가 외국에서 노력한 것 이상으로 알아 주시는 것 같아 감격했다. 나는 그런 감격을 안고 앞으로 내가 노력한 것을 자주 보일 기회가 있었으면 했다. 더구나 내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북극의 그 길을 자주 다니기 위해서라도 그런 기회가 많기를 바랐다.

한국에 돌아와 있는 동안은 도자기를 하게 되었다.

파리에서는 유희를 하고, 南佛의 뚜레뜨에서는 판화를 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 서울에서는 도자기를 하는 내 생활에 나는 더 없이 만족한다. 철따라 그곳을 각각 찾을 무렵이면 희망에 가득찬다. 나는 슬프면 못산다. 항상 희망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다.

세계에서도 가장 좋은 세 군데에서 살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감사한다. 문화적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파리, 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뚜레뜨는 또 여림이면 프랑스에서 최고로 좋은 곳이다.

그리고 한국은 정치상으로는 불행한 면도 있지만, 예술을 하기에는 위치가 좋은 곳이다. 나는 그런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다행히 여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파리에서 한국으로 오려고 할 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불현듯 솟구친다. 온다고 보따리 쌀 때부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더구나 한국으로 오는 북극의 길은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인 것이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와 보면 불편한 일이 하나 둘이 아니다. 차도 없고, 길도 모르고, 서울이 올 때마다 달라지므로 길을 알 수가 없고 택시를 잡는 일도 그렇게 힘들다. 그런 생소한 일상생활의 불편과 불안 때문에 슬퍼지며 못살것 같다. 더구나 눈부시게 달라지는 서울이 나를 더 어리둥절하게 한다.

그러면 나는 어쨌든지 고향으로 쫓아가야 된

다. 덕수궁이든지, 창덕궁·비원이든지 얼른 찾아간다. “고궁은 어머니처럼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과 호뭇함을 잔뜩 맛본다.

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드는 일은 한국에서 해야 잘 된다. 프랑스에서도 도자기 작품을 했고, 재작년 세브르와, 리모즈에서 각각 국제적인 큰 전람회가 있어 연잎 시리즈를 출품했었지만, 프랑스는 도자기 작업에는 분위기도 흙도 잘 알맞는다.

한국에 와서 한국 흙을 만지면 비로소 살았다는 느낌이 든다. 초목에 수액이 올라오는 것처럼 한국의 땅, 한국의 흙을 만지면 그것을 느낀다.

뚜레뜨에서도 그곳의 자연 속에서 자연의 빛깔, 나무, 풀들을 보며 나무(木版)를 만지니까, 역시 수액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린 자연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도예작업은 김기철, 이강세씨의 시설과 가마를 빌어서 한다.

이 즈음 하는 작품은 ‘蓮의 숲’이다. 내 이상은 백자로 연잎 연꽃등을 수백개 만들어 가지고 커다란 ‘蓮의 숲’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언젠가 누가 나를 보고 “당신은 어디서 죽고 싶으냐”고 물었다. 나는 무심결에 서슴치 않고 “비행기 안에서 제일 죽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런 대답을 해놓고도 나는 섬찟했다. 그리고 곧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비행기 안에서라는 대답에는 북극항로, 가장 아름다운 그 비행기길이 함께 떠올라 있었던 것이다.